

의안
번호

1313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3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의 원 : 전홍표 · 김남수 · 김묘정 · 김상현 · 박선애
백승규 · 서명일 · 이우완 · 진형익 ·
황점복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국방부는 군 병사의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를 위해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상 시설이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남권 등 지방 장병들은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 창원시는 6·25전쟁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지역이자,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다수의 현충시설이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장병들의 역사·안보 체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이 연고지 또는 복무지 인근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창원지역 현충시설을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 에 포함할 것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 현충시설 선정 시 수도권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경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확대가 필요함

- 창원시 내 주요 현충시설을 견학 보상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군 장병의 접근성과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현충시설이 견학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념관 기능 보완,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3. 건 의 문: 붙임

-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문

국방부는 휴가 중인 병사가 일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할 경우, 휴가 또는 외출을 부여하는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국가보훈부와의 협의를 통해 견학 시설을 기존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보상제도를 전군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정책입니다. 이는 군 장병들의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현충시설 기념관 방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현충시설 기념관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남권을 포함한 지방 장병들은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역사적 현장이며, 3·1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 애향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에는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된 다양한 현충시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혼탑, 6·25참전기념비, 3·15 국립묘지, 진해 3·1독립운동 기념비, 애국지사 사당,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등 다수의 시설이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은 현재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 장병들이 연고지 또는 복무지 인근에서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을 체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가보훈부는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대상 현충시설 기념관 선정 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경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확대 지정할 것

하나. 창원시를 포함한 경남지역의 주요 현충시설을 견학 보상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군 장병들이 복무지 또는 연고지 인근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애국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 창원시는 관내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현충시설에 대해 기념관 기능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견학 보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것

군 장병들이 지역 곳곳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체득하는 것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장병들이 균등하게 국가의 역사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일

창원시의회